Recommender System

Content-based Recommendation

- 각 사용자가 구매 / 만족했던 상품과 유사한 것을 추천하는 방법
 - 。 동일한 장르의 영화를 추천
 - 동일한 감독의 영화 혹은 동일 배우가 출현한 영화를 추천
 - 。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
 - 。 동갑의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친구로 추천하는 것

과정

- 1. 사용자가 선호했던 상품들의 상품 프로필 (Item Profile)을 수집하는 단계
 - 해당 상품의 특성을 나열한 벡터
 - 무수하게 많은 Feature들에 대해 One-hot Encoding 으로 표현
- 2. 사용자 프로필 (User Profile)을 구성하는 단계
 - 사용자 프로필은 선호한 상품의 상품 프로필을 선호도를 사용하여 가중 평균하여
 계산
 - 어떠한 사용자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, 각 영화들은 특성 벡터 가지나 그 각 영화들의 가중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반영하여 Aggregation을 진행
- 3. 사용자 프로필과 다른 상품들의 상품 프로필을 매칭하는 단계
 - 사용자 프로필 벡터와 상품 프로필 벡터의 Similarity를 계산

장점

- 다른 사용자의 구매 기록이 필요하지 않음
- 독특한 취향의 사용자에게도 추천이 가능
- 새 상품에 대해서도 추천이 가능
- 추천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음 (History 바탕)

단점

• 상품에 대한 부가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

- 구매 기록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음
- Overfitting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추천을 할 위험이 존재

ch9.pdf

Collaborative Filtering

과정

- 1. 사용자와 유사한 취향을 갖는 기존 사용자들을 찾음.
 - 어떻게 유사한 취향의 사용자를 찾을 수 있을까?
 - 。 상관계수 (Correlation Coefficient) 를 통해 측정

취향의 유사성은 상관 계수(Correlation Coefficient)를 통해 측정합니다

사용자 x의 상품 s에 대한 평점을 r_x 라고 합시다 사용자 x가 매긴 평균 평점을 r_x 라고 합시다 사용자 x와 y가 공동 구매한 상품들을 S_{xy} 라고 합시다 사용자 x와 y의 취향의 유사도는 아래 수식으로 계산합니다

$$sim(\mathbf{x}, \mathbf{y}) = \frac{\sum_{\mathbf{S} \in S_{\mathbf{x}y}} (r_{\mathbf{x}s} - \overline{r_{\mathbf{x}}}) (r_{\mathbf{O}s} \sqrt{\overline{r_{y}}})}{\sqrt{\sum_{s \in S_{\mathbf{x}y}} (r_{\mathbf{x}s} - \overline{r_{\mathbf{x}}})^{2}} \sqrt{\sum_{s \in S_{\mathbf{x}y}} (r_{ys} - \overline{r_{y}})^{2}}}$$

즉, 통계에서의 상관 계수(Correlation Coefficient)를 사용해 취향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

- 2. 유사한 취향의 사용자들이 선호한 상품을 찾음
 - 이러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 S를 구매한 사용자 중에 대상 사용자 X와 취향이 가장 유사한 K명의 사용자를 도출
 - 취향의 유사도를 가중치로 사용한 평점의 가중 평균을 통해 평점을 추정
- 3. 이 상품들을 사용자에게 추천
 - 대상 사용자 X가 구매하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 평점을 추정한 뒤 평점이 가장 높은 상품을 추천

장점

• 상품에 대한 부가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.

단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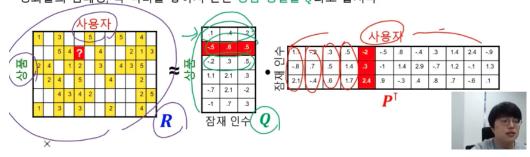
- 충분한 수의 평점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효과적
- 새 상품,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추천이 불가능
- 독특한 취향의 사용자에게 추천이 어려움

Latent Factor Mode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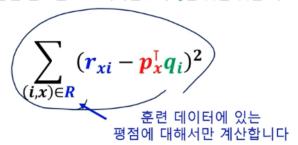
- Latent Factor Model의 핵심은 사용자와 상품을 벡터로 표현하는 것
- 어떻게 Embedding 할 것인가?
 - 。 각 사용자와 상품의 임베딩 벡터 내적이 평점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학습
 - 사용자 x의 임베딩을 p_x, 상품 i의 임베딩을 q_i
 - 사용자 x의 상품 i에 대한 평점을 r_xi
 - 임베딩의 목표는 p_x^t * q_i 가 r_xj 와 유사하도록 학습

행렬 차원에서 살펴봅시다

사용자 수의 열과 상품 수의 행을 가진 평점 행렬을 R이라고 합시다 사용자들의 임베딩, 즉 벡터를 쌓아서 만든 $\frac{1}{2}$ 사용자 행렬을 $\frac{1}{2}$ 라고 합시다 영화들의 임베딩, 즉 벡터를 쌓아서 만든 상품 행렬을 $\frac{1}{2}$ 라고 합시다



잠재 인수 모형은 다음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P와 Q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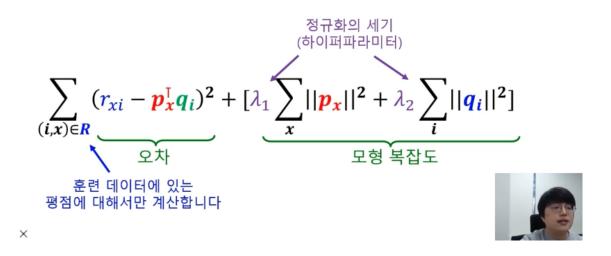


하지만, 위 손실 함수를 사용할 경우 과적합(Overfitting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적합이란 기계학습 모형이 훈련 데이터의 잡음(Noise)까지 학습하여, 평가 성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



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화 항을 손실 함수에 더해줍니다

×



Latent Factor Model with bias from user and item

- 사용자의 편향: 해당 사용자의 평점 평균과 전체 평점 평균의 차이
- 아이템의 편향: 해당 상품에 대한 평점 평균과 전체 평점 평균의 차이

개선된 잠재 인수 모형에서는 평점을 전체 평균, 사용자 편향, 상품 편향, 상호작용으로 분리합니다

$$r_{\chi i} = \mu + b_{\chi} + b_i + p_{\chi}^{\intercal} q_i$$
 평점 전체 평균 사용자 편향 상품 편향 상호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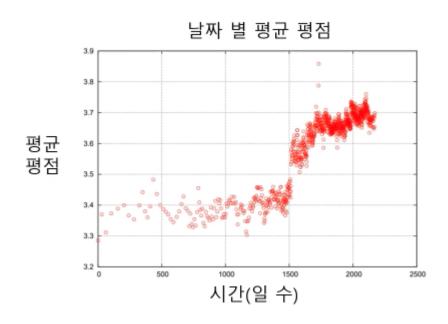
• 사용자 편향과 상품 편향을 함께 학습하여 평점을 예측 (전체 평균은 단순히 사용)

개선된 잠재 인수 모형의 손실 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

$$\sum_{(i,x)\in R} (r_{xi}) - \underbrace{\frac{1}{\mu} + \frac{1}{b_x} + \frac{1}{b_i}}_{(i,x)\in R} + \underbrace{\frac{1}{\mu} + \frac{1}{\mu} + \frac{1}{\mu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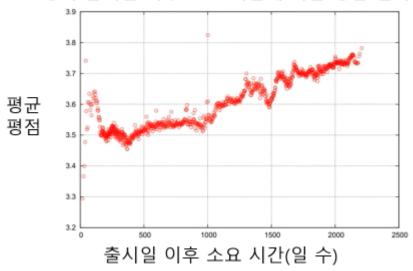
Latent Factor Model with Time-series

- 영화의 평점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존재
 - 。 넷플릭스 UI/UX 시스템의 변화로 평균 평점이 크게 상승하는 사건 존재



。 영화의 평점은 출시일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가짐

영화 출시일 이후 소요 시간에 따른 평점 변화



• 사용자 편향과 상품 편향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게 반영

개선된 잠재 인수 모형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편향을 고려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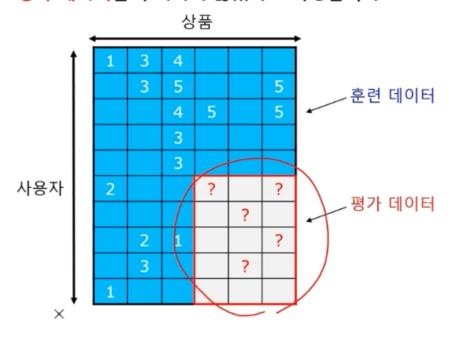
구체적으로 사용자 편향과 상품 편향을 시간에 따른 함수로 가정합니다

$$r_{\chi i} = \mu + b_{\chi}(t) + b_{i}(t) + p_{\chi}^{T}q_{i}$$
 평점 전체 평균 사용자 편향 상품 편향 상호작용

추천 시스템 평가

• User-Item Rating Matrix를 통해 조사

평가 데이터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



- Matrix의 일부를 훈련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
- 추천 시스템의 평점과 실제 평점과 비교
 - MSE
 - RMSE